

회원사에 노무라의 정보통신 정보 제공

우리협회는 일본 노무라연구소(NRI)가 제공하는 정보통신 관련 정보를 회원사들에게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한다. 협회는 지난 8월 7일 노무라연구소와 정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NRI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회원사와 정보통신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협회의 정보서비스 시스템인 'CCPA-LINK'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제공에 들어가기로 했다.

협회는 NRI의 관련 정보를 한글화 번역작업을 거쳐 제공하는데 구체적인 서비스 방법은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곧 확정한다.

세계적인 노무라연구소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경제·금융, 산업·기업, 정보·통신, 사회·생활 등 4개분야이며, 이중 협회는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규통신서비스에 대한 식별번호부여 공청회

신규통신서비스 및 사업자가 선정됨에 따라 이들에게 식별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우리 협회와 통신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공청회는 9월 2일 대항상공회의소에서 열리며 초고속망 번호체계 특수번호체계개선 방안 신신규통신 사업자에 대한 식별번호 부여방안 등이 주제로 다루어진다.

이들 3개 주제에 대한 토론의 시간도 가진다.

초고속망 사업추진 업계의견수렴 회의

우리 협회는 지난 8월 9일 협회 회의실에서 삼성전자 외 12개 업체 실무자 총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업계 현안인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초고속망 사업추진 업계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민간업계의견을 정부에 건의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승인제도를 검토한 결과 수요요창출의 어려움 사업성 부족 초고속투자 과대 투투자회수 장기화 스키기술관련 가이드 부족 등이 지적되었고, 따라서 투자비용 단기회수가 가

능토록 사업대상지역 고려 △226개 망사업 대상지역을 인접지역과 서로 네트워킹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대상지역을 인구밀도 감안 재구분 △망사업자 승인제도는 사전에 관련부처와 협의 △대상지역 추가 선정 △사업자 서비스 내용 확대추가 △각 기업 시물레이션 자료 협회로 제출 △관련 공청회 개최 등의 내용을 건의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참가자들로부터 수렴했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초고속망사업 대상지역의 시물레이션 결과 손익분기점 10년후 도달, 서비스대상 가입자 및 서비스 내용 모호 △망구축 관료공사의 어려움 △기간통신사업자와 전송망사업자간 경쟁체제 연기 △사업지역 226개중 14개 정도만 사업성 예상 △2개 공항지역의 현실적인 사업추진 어려움 등이 추가로 지적되었다.

병역특례지정업체선정 신청 신규 116개사

우리협회와 정보통신부와 산하 체신청이 공동으로 신청을 받은 정보통신기기제조업 분야 "병역특례지정업체 선정 추천제도"의 신청서 접수결과 모두 116개 업체에서 895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우리 협회에 접수된 숫자는 91개 업체에 698명으로 78%를 차지했다.

이번 병역특례지정업체 접수는 중전 통산산업부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정보통신산업(기기, 소프트웨어)에 한하여 정보통신부로 이관함에 따라서 처음으로 우리협회와 지방 체신청에서 담당한 것으로, 이에 따라 중전 병역특례지정업체로 지정을 받은 업체의 재신청도 104업체의 1,299명이 이루어졌다. 재신청은 우리협회가 담당했다.

이들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마련한 배점기준에 의하여 정보통신부가 서류를 심의하여 ABCD로 등급을 구분, 추천하여 병무청에서 필요한 인력만큼의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 발표는 오는 12월 중에 이루어 진다.

전문기술인력의 산업체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병역특례지정업체선정은 향후 매년 올해와 같은 일정으로 실시하는데, 신청기간은 7월 1일~8월 10

일이며, 선정통보는 12월 1일~31일에 이루어진다.

병역특례지정업체 신청 현황(기기부문)

구분	대상분야	접수기관	업체수	신청인원		
				현역	보충역	계
신규	정보통신 기기제조업	서울체신청	16	60	53	113
		부산체신청	2	6	4	10
		전남체신청	1	8	10	18
		충청체신청	5	32	18	50
		경북체신청	1	5	1	6
		전북체신청	0	0	0	0
		강원체신청	0	0	0	0
		제주체신청	0	0	0	0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91	440	258	698	
합계			116	551	344	895
기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04			1,299

인터넷 자격시험제 도입 검토

우리 협회에서는 인터넷에 관한 지식과 조작기술 등을 평가하는 ‘인터넷자격시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협회의 이같은 검토는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 관련 시험이 실시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인터넷 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일본과 미국의 인터넷 시험제도를 조사 연구하여 가능한 경우 국내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외국의 경우 일본에서는 NTT(일본전신전화), 일본마이크로소프트사, 아스키 등 5개 업체가 ‘IPA(Internet Professional Adviser)’란 자격검정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개설된 가상시험장을 통해 실시하는 이 시험에 합격하면 IPA자격인정위원회가 자격증을 발급한다.

미국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터넷 기술능력

을 측정하는 전문가 면허 프로그램(MCP)을 마련,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 자격시험 제도가 실시될 경우 사원들의 인사나 채용, 인터넷 교사 양성 등의 객관적 평가 기준에 활용될 전망이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정보처리가 늘어나면서 인터넷과 PC통신 등의 활용능력을 요구하는 기업이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평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97년도 정보통신산업 전망 심포지움 개최

우리협회는 오는 11월 8일 강남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관에서 “97년도 정보통신산업 전망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전문가들이 참석, 97년의 산업전망을 분야별로 조망해보는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다국적 시장조사사들이 내다보는 미국과 유럽, 아시아 그리고 국내산업에 대한 전망이 발표된다. 참여 주제와 연사는 △미국의 정보통신산업 시장 현황과 전망(데이터퀘스트 손중형 지사장) △유럽의 정보통신산업 시장 현황과 전망(IDC 김용선 지사장) △아시아의 정보통신산업 시장현황과 전망(노무라연구소 켄지시노 지사장) △세계의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전망(ADL 정태수 지사장) △한국의 정보통신사업 시장현황과 전망(KIET 이경태 부원장) 등이다. (문의 : 5131-181~4, 조사연구실)

중소기업위한 시험 및 계측장비 안내 서비스

우리 협회는 랜탈업체와 연구소, 통신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 및 계측장비 목록을 모아서 DB로 구축,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한다.

고가인 이들 시험 및 계측장비를 DB화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이들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DB는 20개의 대분류와 349개의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 및 계측장비 안내 DB의 URL은 <http://sunspark.ccpak.or.kr/>에서 사업 DB를 선택하면 된다. ◆